

한국 가족문제의 성향과 가족치료 접근

송성자*

I. 서언

한국의 문제가족에게 좀더 적절하고 효율적인 임상적 접근을 하기위한 기초 연구와 임상실험연구를 위하여 그리고 한국 문제가족의 욕구를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는 가족치료 모델을 개발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변화하고있는 가족형태, 가족문제의 성향, 가족치료의 실시 현황, 가족치료에 대한 욕구등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연구는 임상실험과 효율적인 가족치료 모델발달에 필수적인 기초작업이라고 생각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임상적 차원에서 접근이 가능한 가족구조와 가족기능에 관심을두고 고찰하고, 한국사회에서 제기되는 가족문제의 성향을 고찰하려고한다. 그리고 가족구조와 가족기능은 1970년대를 기점으로할 때 많은 변화를 하여왔고, 현재도 변화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변화할 것이다. 따라서 변화하고있는 과정에서의 가족을 분석하고 예측하려고 한다. 그리고 가족치료적 접근을 타진하기위한 가족치료의 실시현황과 가족치료에 대한 욕구를 타진하려고 하며, 이러한 고찰을 근거로 한국에서의 가족치료적 접근을 전망하려고한다.

이러한 기초연구가 실제로 문제가족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문제가족을 좀더 구체적으로 사정평가하고, 치료목표를 설정하고 접근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한국 가족치료 모델발달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며, 가족치료에 관한 교육과 훈련을 위한 근거자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 경기대학교 교수

II. 변화하는 가족형태

1. 가족구조의 변화

가족의 형태를 분류하는 기준은 일반적으로 가족의 크기, 형태 및 구조나 제도적 특성등에 초점을두고, 소가족, 핵가족, 확대가족, 대가족등으로 구별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가족에 관한 연구는 부부중심의 핵가족을 기준으로 하고있다. 산업사회화, 도시화, 인구이동등에 따라 가족구조는 점차로 변화하였으며, 핵가족화의 경향은 통계적으로 증가하고, 가족의 규모도 소인수가족으로 변화하고, 가족의 형태도 다양해지고있다. 현대가족의 가족형태는 확대가족, 핵가족, 별거가족, 무자녀가족, 편부모가족, 노인가족, 청소년가장가족, 독신가족, 미혼모가족등이있다. 가족구조의 공통된 변화중 하나는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전형적인 핵가족의 해체와 동시에 맞벌이부부, 혼전동거부부, 편부모가족, 독신가구등의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출현하고 있는 것이다. ¹⁾ 전국의 가구구성 형태비율과 불안정 가구비율은 <표1>과 <표2>를 참조하기 바란다. ²⁾

통계자료를 근거로 하지 않아도 3세대 가족이 증가하고있는 것은 이미 알고있있는 사실이고, 1세대 가족과 단독가구가 증가하고있는 것 역시 분명한 현상이다. 그리고 단독가구가 증가하는 원인은 결혼연령의 상승에 따른 독신자의 증가,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한 노후의 독신가구의 증가, 1세대 가구의 경우에는 기혼자녀와의 별거로 인한 노부부가족 및 결혼후 자녀출산의 연장이나 무자녀가족등을 들 수있다.

노인가족이 증가하고있는 원인으로 핵가족화와 직장의 이동으로 자녀가족이 노부모와 분가하는 경우와, 노인들이 경제력을 갖고 있으므로 독립적으로 생활을 하고자하는 욕구,등을 들 수있다. 그리고 앞으로 연금제도가 실시되고 보험제도가 확대되면 노인가족은 더욱 증가하리라고 본다. 노인가족의 문제는 경제적인문제, 심리정서적인 문제, 노인의 사회참여, 여가시간활용, 건강관리, 그리고 병간호문제가 현실적인 문제로 대두되고있다.

별거가족도 증가하고있다. 이것은 부부관계에 갈등이 있어서 별거하는 것보다도 직장의 거리로 인하여 별거하는 경우이다. 남편이나 부인의 직장이 집과의 거리가 멀어 주말이나 1개월에 몇번 정도 집에 갈 수 있는 별거가족으로써 그 개념의 폭이 넓어지고있다. 가족은 자녀의 교육, 주택, 부인의 직장, 생활근거지등의 이유로 가족과 별거하는 경우가 증가하고있다. 이와같은 현상도 산업사회의 산물이며, 가족의 별거는 가장의 부채로 부부갈등이 유발되거나 자녀감독에 소홀하여 자녀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다.

편부모가족 또는 모자가족의 발생의 원인은 배우자의 사망, 배우자와의 이

-
- 1) 한국여성개발원, 한국 가족정책에 관한 연구: 여성 아동복지에 관한 서비스를 중심으로 1990c, p. 1
 - 2) 표는 지면관계상 뒤에 첨부한 부록을 참조하기바랍니다.
 - 3) 한국 여성개발원, 저소득층 모자가족에 관한 연구, 1988, p. 4

혼, 유기, 별거, 배우자의 행방불명, 미혼모등을 들 수 있다. 편부모가족의 비율은 1970년을 시점으로할때 계속증가하고있으며, 그 가운데 10%이상이 요보호대상이다.³⁾ 저소득층 모자가족이 갖고있는 어려움은 경제적인 문제는 물론, 심리정서적 문제, 가계책임자로서의 부담, 자녀에대한 의무감, 등 감당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 앞으로 이혼율이 증가하고, 결혼하지않고 동거하다가 이별하는 경우의 증가, 등으로 편모가족 혹은 미혼모 가족은 계속 증가하리라고 예측할 수 있다.

청소년 가장 가족은 현대산업사회의 부산물 가운데 하나이다. 과거에는 양부모가 사망하게 되거나 어떠한 이유에서든 장기간 부모의 부재시에는 가까운 친척들이 돌보는 것이 상례였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는 자기가족외의 친척들에 대한 책임의식이 약해지고있고, 임금은 적지만 청소년들의 취업기회가 증가하고있다. 그러나 청소년 가장 가족이 독립적으로 생활하는데 있어 경제적 문제가 매우 심각한 것은 공통된 문제이며, 부모의 역할과 기능이 없는 가족구조 내에서 성장하는 청소년에게 제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가족구조의 변화는 전통사회의 가족구조와는 대조적인 가족의 형태였으며, 현대사회에서는 필요와 상황에 따라 발생하는 가족의 형태들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가족의 형태들은 특징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불안정한 요인 즉 잠재적 문제성향을 갖고있다. 그리고 가족구조의 축소화 내지는 단순화는 가족기능과 가족관계의 변화를 초래하고있다. 따라서 가족구조의 변화를 가족기능 및 가족관계와 관련된것을 관찰할때 가족 전체구조와 가족문제를 더욱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2. 가족기능의 변화

미국의 인류학자인 Murdock은 250개 사회에 관한 문헌을 조사한 결과 보편적인 가족기능의 측면으로써 첫째, 자녀출산, 둘째, 사회화교육, 셋째, 경제적 협조, 넷째, 성적욕구충족등을 지적하였다.⁴⁾ Stark는 정서적 기능을 강조하고, Shepard와 Voss는 性的 동일시와 역할배분, 지위부여에 초점을 두었고, Feldman과 Sherz는 정서적, 사회적 기능과 성적 동일시를 중요시하였고, Nye와 Berardo는 자녀에 대한 사회화과정에 역점을 두었다.⁵⁾ 그리고 Ogburn은 가족의 기능을 주기능과 부기능으로 분류하였으며, 주기능은 성적 기능, 부양의 기능을 말하고, 부기능은 교육적기능, 경제적기능, 종교적기능, 위안적기능, 보호적 기능, 사교적 기능을 지적하였다.⁶⁾

한국 정신문화원에서 제시하고있는 한국가족의 기능을 경제적 공급 기능, 자녀양육 및 교육기능, 보호기능, 정서적 지지 및 치료기능, 휴식 및 오락의 기

4) B.Adams, The Family:A Sociological Interpretation, Chicago:Rand McNally

College Pub.Co. 1980, p.105.

5) 송성자, 가족관계와 가족치료, 서울:홍익제, 1989, p.19.

6) 유영주, 신 가족관계학, 서울:교문사, 1990, p.34

능, 종교적 기능, 생식의 기능으로 설명하였다.⁷⁾ 그리고 가족의 기능을 3세대 부부중심가족, 2세대 부부중심가족, 1세대 노인가족의 형태로 구분하고, 3개 형태 가족의 기능을 분리하여 설명하였다. 또한 가족의 형태에 따라 주기능에 차이가 있음도 지적하였다.

이상에서 지적한 이론을 근거로 한국가족의 기능을 설명할 때, 한국가족의 독특한 가부장제 가족제도와 가계존속을 중요시하는 가족관계, 그리고 자녀에 대한 강한 보호와 책임의식을 반영하고있는 가족기능에 관하여 설명하려고 한다. 여기서는 2세대 부부중심의 가족형태를 기준으로 하려고 한다. 그리고 이상에서 지적한 가족기능의 여러 측면들을 전체적으로 크게 성적 욕구충족, 자녀출산과 자녀교육, 경제적 협조, 정서적 지지, 사회화교육의 기능으로 분류하고, 이러한 기능들이 약화내지는 장애받을 때 예측되는 문제발생과 관련시켜 고찰하려고 한다.

성적욕구충족 기능: 부부의 성적 결속은 성적욕구충족만이 아니라 자녀출산과 자녀양육 및 사회화에 필요한 가족의 안정 및 유지와 나아가서는 사회의 안정과 연속성을 보장해준다. 그러나 부부관계에만 국한하는 성적규범이 와해되는 경우 부부문제, 자녀양육 및 교육문제, 가족관계등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다. 대표적인 가정문제로 배우자의 부정관계는 성적 욕구충족 기능과 관련하여 생각할 수 있다.

자녀출산 및 자녀양육의 기능: 자녀출산 및 자녀양육에 관하여는 가족이 어느 사회교육 집단 또는 기관보다도 더욱 질적으로 바람직한 양육과 사회화교육의 場의 기능을 할 수 있다고 인식하여왔다. 그러나 핵가족화, 소가족화, 사회교육집단에 의존, 등의 사회조건변화는 극복하기 어려운 다른 가족문제 또는 자녀문제, 사회적응문제등을 제기하고있다. 첫째, 확대가족이나 대가족 구조에서는 자녀들에게 인간관계에서 다양하게 모델역할을 할수있는 가족성원들이 있었다. 그러나 핵가족구조안에서는 자녀성장에 필요한 모든 역할을 부모가 감당하여야 하므로 부모의 심리적, 정신적 부담이 증가하고있다. 둘째, 자녀가 제한된 연령층의 가족성원들과 주로 상호작용하므로 다양한 연령층과 접촉할수있는 기회를 상실하게된다. 따라서 세대간의 단절이 이어질 가능성이있다. 셋째, 부모가 직장생활과 사회활동에 참여하므로 집을 비우게될 경우 자녀를 대신하여 보호하는 대안수립이 어렵다. 그리고 부모의 부재시 자녀의 비행행동이 나타날 경우에 좀더 빨리 발견하고 통제할수 있는 부모외의 성인 가족성원이 없다. 넷째, 확대가족에서는 가정관리, 가사노동, 자녀양육의 역할을 다른 가족성원들과 분담하는 것이 가능하였으나, 핵가족에서는 주로 주부이며 어머니 때로는 직장여성이기도한 젊은 여성이 모든 일을 수행하여야하므로 그 부담감은 더욱 가중되고있다. 이것은 신경증, 정신질환, 알콜중독, 아동유기, 부부갈등등의 문제로 표출되기도한다.

정서적 지지 기능: 한국 사회구조는 기계화, 분업 및 전문화, 개인의 능력, 생산성과 효율성에 많은 가치를 두고, 경쟁적인 사회구조로 변화하였으며, 현

7) 김한초외 3인, 한국가족의 표준모형 개발, 한국정신문화 연구원, 1986, pp. 79-89.

대인들은 많은 긴장과 스트레스를 받으며 생활하고있다. 그리고 기혼여성의 사회참여와 취업 비율은 점차로 증가하고있다. 이러한 요인들은 어느때 보다는 가족에서 휴식을 취하고, 정서적으로 지지를 받으며 에너지를 재충전하여야 하는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말해주고있다.

그러나 가족에서의 성차별적 역할수행, 가정과 직장의 엄격한 분리, 여성중심적인 가족의 역할수행등은 오랜동안 긴장을 해소하지 못하고 계속될 경우 여러가지 문제를 예측할수있다. 부부간의 의사소통 단절, 상호간에 소외감 또는 좌절감을 느낄수있으며, 배우자는 상대방의 정서적 지지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할 수있다. 부인이 직장을 갖고있는 경우, 부인 역시 사회생활을 통하여 받는 긴장과 스트레스를 가정에서 해소하고 정서적 지지를 기대한다. 그러나 이러한 욕구가 상호간에 충족되지 못할때 긴장감이 누적되어 가족관계가 해체될 수 있는 가능성이 증가하고, 심한 경우 부부갈등이나 이혼의 원인이 되기도한다고 본다.⁸⁾

경제적 협조기능 : 산업사회에서 가족의 기능은 소비단위로써 소비기능이 점차로 확대되어왔다. 생산능력이나 경제능력이 있는 사람이 일을 하고, 그 수입으로 생산능력이 적거나 없는 가족들과 함께 생활한다. 이것은 가족구조 내에 경제력이 있는 가족성원(주로 가장인 남편의 역할)에게 경제적 책임이 주어지며, 다른 가족성원들은 주로 소비기능을 함으로서 가족성원의 생산적 경제인과 소비자간의 경제적 협동이 필요로하는 것이 현대가족의 주요기능이 되었다.

생산기능 보다는 소비기능이 확대되고, 모든 생활을 소비기능에 의존하여야 하는 산업사회구조에서 물질에 보다 큰 가치를 두게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가치기준이 물질이되어 배우자 선정 및 결혼생활 만족에 있어서도 물질이 척도가 됨으로써 非人間化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중요한 것은 경제적 빈곤만이 아니라 제한된 수입으로 가정경제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능력 및 협조관계상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사회화 교육 기능: 사회화는 생리적 욕구를 통제하는 것을 배우는 과정이며, 어떤 것은 허용되고 어떤 행동은 허용되지 않는가를 배우고, 자기정체감을 발달시키는 것을 말한다. 사회화교육은 사회에 적응할 수 있고 사회의 요구에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을 배양하는 것이다. 이것은 교육기관을 통하여도 이루어지지만 가족내의 가족관계와 일상생활을 통하여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사회교육기관에서는 부족하거나 불가능한 성적인 역할, 아버지와 어머니, 남편과 아내, 부모 자녀관계, 인간관계에 있어서 기대와 역할수행, 세상을 보는 태도, 어려움을 당면하였을때 대처하는 지혜, 가치관, 전통적인 문화가치, 문화관습적인 행동양식, 언어 생활습관등 을 포함한다.

이와같은 사회화 교육은 과거 확대가족이나 대가족에서는 조부모, 고모, 이모, 삼촌등 친척과 많은 형제들을 접촉하면서 학습, 모방, 교정등이 폭넓고 자

8) J. Shepard & H. Voss. Social Problems, New York: McMillan Publishing Co. 1978, p. 230.

연스럽게 이루어졌다. 그러나 핵가족 혹은 소수가족에서는 모방할 수 있는 모델이 적고, 학습의 기회가 제한되어있다. 그리고 자기중심적 생활과 가치관으로 인하여 이웃자녀나 친척자녀에 대한 공동체 의식이 약해지고있다. 따라서 현대사회에서 사회화 교육은 주로 부모에게 의존하고있다.

사회화교육 기능의 약화나 상실이 심화될 경우, 세대간의 단절을 초래할 수 있으며, 특히 자기억제 훈련이 부족한 청소년들은 충동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증가하고, 사회조직체 속에서의 부적응 내지는 결혼 배우자와의 부적응등의 문제, 자신의 자녀에 대한 교육등과 관련하여 생각할 수 있다.

앞에서 설명한 가족기능의 약화 내지는 상실이 개인과 가족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제반문제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볼수는 없다. 그러나 이혼율 증가, 성관계를 결혼과는 별개의 문제로 보려는 경향, 남편과 아버지의 권위약화, 가족의 보호적 기능약화, 가족유기 혹은 학대, 문화적 가치와 행동양식의 감소, 미혼모 증가, 아동학대 혹은 유기, 청소년 비행문제, 노인문제, 부모-자녀관계 문제, 등의 가족문제 성향과 원인을 분석하는데 있어 가족구조와 가족기능을 척도로 사용할 때 이해와 파악이 용이하다고 본다.

III. 가족문제의 성향과 내용

한국가족에서 발생하는 가족문제의 성향과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서울시 중앙가정상담소⁹⁾에서 20년간의 상담자료를 근거로 분석한 자료, 사랑의 전화에서 실시한 사례분석자료,¹⁰⁾ 여성개발원¹¹⁾에서 전국적으로 상담사업을 실시하고있는 158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료를 근거로 고찰하려고한다.

서울시 중앙가정상담소에서 1970년부터 1990년까지 실시한 자료에 의하면 20년간 배우자의 부정관계가 가장 많이 다루어졌고, 배우자간의 성격차이, 고부갈등, 남편의 주벽, 폭행, 학대의 문제, 자녀문제로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는 년대별로 순위에 큰 변화없이 상대적으로 많은것을 볼수 있다. 그리고 고부갈등의 문제는 핵가족화되고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오히려 증가하고있다. (<표3>을 참조)

이것은 20년 동안에 사회구조와 가족구조에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가족관계와 가족기능을 중심으로하는 가족문제의 성향에는 큰 변화가 없는것을 볼수있다. 이것은 가족문제가 사회변화의 영향을 받지만, 가족문제의 성향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않았다고 해석할수있다. 그리고 가족문제는 가족구조내의 가족관계 역동성에서 발생하는 것이며, 주로 부부관계를 중심으로 가족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사랑의 전화에서 실시한 자료에 의하면 <표4>, <표5>에서 볼 수 있듯이 상담 내용 순위는 부부문제, 이성문제, 가족문제, 성문제로 나타났다. 성문제는 해마다 증가하고있는데 이것은 성문제의 창구로 전화상담이 가장 안전하고 편리

9) 서울시 중앙 가정상담소, 가정문제 성향분석, 1991, 미간행

10) 사랑의 전화, 상담통계분석, 1993, 미간행물

11) 한국여성개발원, 가족상담 활성화 방안에 관한연구, 1991

한 수단이기 때문에 분석할 수도 있지만, 문제의 증가와 적절한 상담기관의 부족도 함께 지적하고 있다고 본다. 부부문제의 경우 배우자 외도, 가치관차이, 성생활, 이혼, 폭력이 주요문제로 나타났고, 가족문제로 자녀문제, 시가갈등, 부모갈등, 형제갈등이 높은 순위로 나타났다.

여성개발원에서 1991년에 상담사업을 실시하고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자료에 의하면 가족문제가 부부문제와 부모-자녀관계의 문제비율이 비슷하며 높게 나타났으며, 고부관계 문제, 형제자매관계의 문제의 순으로 나타났다(<표6>참조). 그리고 가족문제의 성향을 볼 때 경제무능력, 자녀의 비행문제, 남편의 폭행, 학대, 주벽, 정신건강이 주요문제인 것을 볼 수 있다. <표1>과 <표6>에 의하면 3세대 가족이 전국적으로 12.2%인 것에 비해, 고부갈등 상담비율이 17%이상을 차지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동거시에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분가시에도 문제가 발생 되고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고 본다.

위에서 조사자료를 근거로 보았듯이 상담문제의 성향은 부부중심의 문제가 가장 두드러지게 많고, 부모-자녀관계 문제, 시집관계문제, 고부갈등, 형제관계문제, 친척갈등등의 가족구조내에서 가족관계의 문제성향을 나타내고있다. 이것은 핵가족화되고, 부부중심으로 생활하고있으나 확대가족과의 관계속에서 영향을 주고받으며 생활하고 있음을 나타내고있다고 본다. 즉 부부문제 또는 가족문제의 발생원인에 시부모 또는 친척들이 기여를 하고있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들이 문제해결 내지는 협조체계를 형성할 수 있는 자원이 되기도하는 것을 지적하는 바이다.

그리고 부부문제를 구체적으로 분석할때 배우자의 부정, 성격차이, 가치관차이, 성생활, 폭행, 학대, 가출등으로 나타내고있다. 그리고 자녀의 문제가 조사자료마다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자녀문제를 독립된 문제로만 보기보다는 부부문제 또는 가족문제와의 관련성 속에서 고찰하여야 한다고 본다. 많은 경우, 자녀문제로 가족상담을 요청하였으나, 실제로는 남편의 학대와 경제적 문제 그리고 고부갈등의 복합적이며 복잡한 문제를 가지고있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부부문제가 악화되는 경우 이혼하는 사례가 점차로 증가하고있다. 이혼의 증가현상은 한국에서도 1965년을 기준으로하여 5년단위로 볼때 결혼에 대한 이혼율(단위:천명 %)은 3.1%, 5.1%, 5.4%, 7.9%, 1985년에는 10.5%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¹²⁾ 그리고 이혼의 사유를 부부불화, 가족간 불화, 건강문제, 경제문제로 대별화한 한국의 사회지표 자료를 근거로하면, 부부불화는 1975년에 64.2%정도였던 것이 1990년에는 82.1%로 증가한 반면에, 가족간 불화는 8.5%였던것이 3.9%로, 건강상 이유는 5.2%에서 1.7%로, 경제문제는 5.2%에서 3.0%로 감소하고 있는것을 볼수있다.¹³⁾

이것은 이혼의 이유가 고부갈등, 친척간의 문제, 경제적 빈곤등의 이유로 가족이 해체되던 것은 점차로 감소하는 반면에, 부부 당사자들의 부부관계에서

12) 이태영, 한국의 이혼율 연구II, 한국 가정법률 상담소, 1989, p. 6

13)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1992. p. 300.

발생하는 심리정서적인 문제가 증가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표 3>과 관련하여 분석할 때 고부갈등의 문제로 상담을 요청하는 사례는 증가하고 있으나, 고부갈등이 이혼사유가 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감소하고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여러 차원에서 해석할 수 있으며 의미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혼을하기까지 본인들의 어려움과 고통이있지만, 이혼후에 한국사회에서 특히 여성과 자녀들이 경험하여야하는 어려움은 매우 크다. 여성이 이혼후에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경제적 빈곤과 정서적 문제이며, 그리고 실제 생활에서 친척관계, 사회적응, 취업, 사회생활에서 극복하여야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를 발생하게한다고 본다. 한국 갤럽조사연구소의 조사에¹⁴⁾ 의하면 한국의 주부들은 62.0%가 이혼에 반대하고, 어떤 이유에서든 이혼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 주부가 25.5%이며, 이혼할만한 이유가 있으나 자녀를 위하여 이혼을 못하는 경우가 89.4%로 나타나있다. 이것은 한국인들의 가족관과 이혼에 대한 태도를 반영하고 있다고 본다. 또한 이것은 가족을 유지하게하고 변화 및 치료를 위한 동기부여의 좋은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IV. 가족치료의 실시현황

한국여성개발원에서는 전국에 산재되어있는 모든 상담기관(사회복지 기관, 상담소) 총 295개 가운데 158개기관, 상담실무자 총 615명 가운데 247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¹⁵⁾ 그 목적은 가족상담의 요구와 실태를 파악하고, 가족상담사업 활성화를 위한 것이었다.

1991년도에 여성개발원에서 실시한 조사결과는 그 대상에 있어 가족치료를 하고 있는 의료 사회사업가 및 정신의료 사회사업가와 그 외의 가족치료를 실시하고있는 모든 실무자를 포함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대상지역이 전국적이며, 상담업무를 실시하고있는 여러 종류의 기관을 조사하였고, 그 내용이 실무자 중심적이어서 실제로 가족상담현실을 파악하고 전망하기에는 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 따라서 여기서는 여성개발원의 자료를 근거로 실시현황을 파악하고 분석하려고한다.

1. 상담기관의 실태

여성개발원에서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기관은 현재 어떠한 형태이던지 상담업무를 실시하고있는 295기관이며, 세부적인 기관수는 <표7>과 같다. 295개의 기관들은 80%이상이 1970년대 이후 설립되었으며, 전체의 40%정도가 1980년대에 설립되었다. 설립재원은 국고보조(36.9%), 자부담(29.9%), 자부담/국가보조(28.7%), 민간후원(4.5%)으로 이루어져있다.

14) 한국갤럽조사연구소, 한국인의 가정생활과 자녀교육, 1983, pp.120-122.

15) 한국여성개발원, 가족상담사업 활성화 방안에 관한연구, 1991.

상담사업을 실시하고있는 기관들은 <표7>에서 보듯이 종합복지관, 부녀회관이나 상담소, 아동상담소 혹은 아동복지관이 비교적 전국적으로 설치되어있는 것을 볼 수 있으나, 청소년 상담소나 청소년 회관은 다른 복지기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기는 하지만 아직 설치되지 않은 지역이있고, 있다고 하여도 1개소 혹은 3개소밖에 없는 지역이 있다. 그리고 노인 상담기관은 서울지역에만 4개소가 있을 뿐이다. 그리고 가정상담 기관은 서울, 부산, 대구, 대전에만 있을 뿐이다.

2. 내담자의 실태

내담자의 분포를 볼때 종합복지관의 경우 남자가 더 많은 것은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하는 프로그램이 많기 때문이라고 볼수있으나, 부녀상담과 아동상담기관, 그리고 가정상담 기관에 남자들이 40%이상 내담하여 상담 받은것은 새로운 사실을 발견한 것이다. 한국에서는 남자들이 권위적인 사고와 태도로 자녀와 가정문제를 여자에게 일임하거나, 상담받는 것을 회피하거나 비협조적일 것이라는 추측과는 상반된 현상이다.

그리고 청소년들의 경우, 청소년회관이나 청소년 상담소등에서 상담을 받은 비율이 여자(36.8%)보다 남자(63.2%)가 더 많은 것을 볼수있다. 이것은 더 동적이어서 경험의 폭도 더 넓으며, 갈등도 더 많을 수 있는 남자 청소년들이 자신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상담을 받는것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본다.

연령계층에서는 청장년 계층이 많은데 이것은 노인이되기 이전이며, 부모연령층으로서 부부문제, 자신의 문제, 자녀문제등을 상담할 수 있는 연령층이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리고 부녀상담 기관에 아동과 청소년이 42.7%, 아동상담 기관에 청장년이 청소년 비율과 같이 40.5%, 청소년 상담기관에 청장년이 23.9%, 가정상담기관에 아동과 청소년이 29.3%로 나타난것을 근거로할때, 부모들이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상담받았다고하는 것을 추측해볼 수 있다. 그리고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내담자의 남녀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난 것을 근거로 한다면, 자녀문제로 상담하는데 있어 남자 특히 아버지들이 참여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한국 부모들 특히 아버지들은 자녀문제에 관한 관심이 많고,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 자세를 취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표9>에 나타나듯이 내담자의 경제수준이 하층인 경우가 58.6%이고, 중산층의 경우 35.6%이고 상층의 경우가 6.4%이다. 이것은 가족상담을 필요로 하는 경제수준이 다양해지고 있는것을 말하고,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복지관이나 상담소를 이용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이것은 필요시에는 자녀문제, 가족문제해결을 위한 유료상담의 가능성도 있음을 말한다.

내담자의 가족생활주기를 볼때 자녀청년기, 부부중년기, 자녀아동기가 두드러지게 많은것을 볼수있다. 이것은 가족관계에서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 자녀문제등으로 가족문제가 가장 발생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오히려 결혼

초에 적응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상담을 필요로하는 수는 많지 않다.

가족구조의 형태를 볼때 일반가정 이외에는 편부모 가정과 청소년 가장가족이 상담을 필요로하는 가족임이 분명하게 나타났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가족구조에서 불안정한 요인과 역기능적인 요인을 갖고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혼 과정중에 있거나, 어머니가 취업하고있는 경우 가족문제 발생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볼 수 있다. 그리고 재혼가정의 경우 전체적인 비율은 5.4%로 적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전체가족과 재혼가족의 비례를 고려할 때 적은수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족구조가 균형적이거나, 기능적인 요인을 가지고있는 가족(36.8%)보다는 결손가족이나 불안정한 상태에있는 가족(63.2%)에서 가족상담을 요청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은 설명할 필요가없다.

3. 상담실무자의 실태

여성개발원에서는 가족상담을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상담에 있어서 가족을 하나의 체계로보고, 가족을 단위로하여 가족의 문제에 실제 개입하는 조직적인 과정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기관의 현실적인 여건(인력, 재정, 기술, 지식)의 어려움으로 가족상담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기관은 매우 적었으며, 상담실무자의 교육배경과 관심정도에 따라 부분적으로 실시하고 있었다. 따라서 체계적인 가족상담은 실시하지 못하여도, 개인의 문제를 가족구조, 가족기능, 가족관계의 개념속에서 파악하고, 가족문제에 대해 상담하고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하였고, 전체의 84.5%가 가족문제를 상담하고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기관별로는 종합복지관의 95.5%가 가족상담을 실시하고 있었고, 부녀복지관(75.0%), 아동상담소(82.1%), 청소년 상담소(81.3%), 노인복지관(50.0%), 가정복지관(100%) 모두가 비교적 많은 기관에서 가족상담을 하고있다. 가족상담을 실제로 실시하고있는 기관에서 상담자의 배경을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가족문제상담 업무를 담당하고있는 상담자들은 <표10>에서 보듯이 주로 사회복지사들이 담당하고있다. 가족상담 또는 가족치료를 전공한 전공자가 부족하지만, 전문인 초빙, 전문인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아 부족한 인력과 지식 측면을 보완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종합복지관, 아동상담소, 가정상담소는 사회복지사, 심리상담원, 초빙 전문상담원, 전문인 자원봉사자들의 인력으로 가족상담에 임하고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가족상담과 관련된 이론과 기법에 관하여 학교에서 교육과 훈련받은 비율은 38.4%에 불과하고, 32%정도는 상담직을 맡고 있으면서 필요에따라 상담업무를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은 교육과 훈련이 실무에서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4. 실무자의 가족상담에대한 인식

<표12>에 나타난 것을 볼때 전체적으로 77%정도가 가족상담이 절실하게 필

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들은 문제의 원인이 개인 보다는 가족관계 내지는 가족구조에 있다고 하는 것과, 개인에게 접근할때는 제한이 있으며, 가족에게 직접 개입하여야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는데, 이러한 요인은 매우 중요한 것이며, 가족상담 내지는 가족치료발달의 동기가 될수있고, 이론발달의 기초가 될 수있다고 본다.

〈표10〉에 의하면 종합복지관과 부녀복지관, 청소년상담소, 가족상담소의 33-43%정도가 전문인력이 부족한 것을 초빙전문상담원 또는 관계전문인의 자원봉사자를 동원하여 부족한 전문인력을 해결하고, 내담자들에게 필요한 가족상담을 제공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적극적인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표11〉에서는 가족상담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의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현직에 근무하면서 필요에따라 관련전문서적을 읽으면서 가족상담을 실시하고있는 경우가 32%정도나 되고있다. 이러한 실태를 근거로할때 상담 실무자들의 가족상담 필요성의 인식정도는 매우 높으며, 가족상담을 실시하기위한 교육 및 훈련의 욕구 또한 많다고 생각된다.

V. 결론 : 가족치료에 대한 전망

사회적인 어떠한 현상을 예측하고 전망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더욱이 가족구조의 형태와, 가족문제등이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으며, 복지관, 상담소, 병원등의 수많은 실천분야에서 가족치료가 실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족치료가 한국의 상황에서 어떻게 발전할 것이라고 예측하기란 힘든일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상담자들의 가족상담과 가족치료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가족문제를 보는 시각이 변화하고, 가족을 중심으로 하고있는 제반 문제가 증가하고 있으며, 가족상담을 하고있는 상담자들이 증가하며, 가족문제를 가지고 상담을 받으러 오는 남녀 내담자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가족치료 전문가에 대한 요구와 교육 및 훈련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가족치료에 관한 연구 및 임상에 있어 매우 긍정적으로 발전을 전망하면서 몇가지 제언을 하려고한다.

1. 가족문제의 성향 : 한국 부부문제 및 가족문제는 배우자의 부정관계, 배우자간의 성격차이, 고부갈등, 남편의 주벽, 폭행, 학대의 문제, 자녀문제등이 주요한 문제인 것을 볼 수 있고, 주로 부부중심적 문제인 것이 과거와 다른 문제의 성향이다. 그리고 최근에는 아내학대, 자녀학대, 이혼등이 사회문제로 제기되고있다. 한국 가족문제의 성향으로 볼 수 있는 것은 핵가족화되고 부부중심의 생활을 하고 있지만 고부갈등 문제가 증가하는 것으로 볼 때, 동거와는 관계없이 확대가족의 영향을 많이 받고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시집과 친정, 형제, 친척들은 부부생활과 가족생활에 장애요인도 될 수 있지만 협조체제로서의 기능을 할 수있다는 것이다. 가족구조와 가족관계의 이러한 요인은 가족치료에있어 자원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2. 가족구조와 가족기능 : 과거의 대가족 혹은 확대 가족구조에서는 가족문

제가 발생하여도 가족구조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능과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핵가족화, 가족 및 친척과의 협조체계약화로 도움 받을 수 있는 가족협조체계가 축소되고, 가족구조 중심의 기능약화로 인하여 점차로 가족협조체계는 사회적 협조체계로 대체되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전통적인 가족의 경제, 교육, 의료, 보호, 등의 자급자족적인 기능이 사회집단에 의존하게되는 것과 같이, 가족의 심리정서적 문제의 해결을 위한 것 역시 가족상담을 할 수 있는 사회집단을 이용하여 가족문제를 해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변화하고있다. 이러한 요인들을 근거로하는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본다.

3. 내담자 성향 : 가족상담을 받은 내담자들의 성향은 과거에 갖고있었던 선입견과 다른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즉 남자들은 자녀상담이나 가족상담에는 참여를 하지않을 것이라는 것과, 주로 여자들이 상담을 요청하며, 주로 빈곤계층의 가족들이 문제가 많을 것이라고 하는것등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은 변하여 전혀 반대의 현상이 통계자료를 근거로 입증되고있다. 특히 자녀문제에 관하여 아버지들이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점과 남자들도 필요시에는 상담을 의뢰하는 경향을 발견한 것이다. 가부장제 가족제도에서 가장인 아버지의 협조와 변화를 위한 주도적 역할을 하도록 할 수 있다면 더욱 효율적인 가족치료과정이 진행되리라고 생각한다.

4. 실무자의 요구 : 가족상담을 실시하고 있는 상담실무자들의 실태에서 보았듯이 개인상담을 하는중에 가족상담의 필요성을 강하게 갖고있으며, 부족한 교육과 훈련에 관한 욕구 또한 강하다. 비전공자들도 실제 실무의 필요상 전문이론을 스스로 연구하여 실시하거나, 단기 워새 혹은 훈련을 받고자하는 강한 욕구가 있다.

5. 학문적, 실천적 측면에서 강조점 : 앞에서 고찰한 한국가족구조, 가족관계, 문제의 성향, 내담자의 성향등과 한국인들의 자녀교육방법, 의사소통방법, 인간관계의 속성등을 근거로하는 가족치료 모델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와 실험연구가 계속 이루어져야한다고 본다. 그리고 많은 가족치료 모델에 관한 깊이있는 실험연구를 통하여 수정,

보완 내지는 한국적 가족치료 모델을 개발하여야한다고 본다.

6.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 개발 : 가족치료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수있는 교육기관이 부족하며, 교육 및 훈련기관과 가족치료실시 기관의 개설이 시급한 현실이다. 그리고 대학 및 대학원에서 개설하고있는 가족치료 관련 교과목만으로는 불충분한 상태이며, 실무자들을 위한 재교육 및 보충교육이 필요하고, 가족치료 교육을 위한 교재와 지침이 필요한 상태이다.

〈 한국가족문제의 성향과 가족치료 접근에 관련된 도표 〉

가구구성 형태비율(전국)

〈표1〉 단위:천가구:%

구분	1966	1975	1985	1990
1세대	5.7	6.7	9.6	10.7
2세대	67.7	68.9	67.0	66.3
3세대	24.1	19.2	14.4	12.2
4세대	2.6	0.9	0.4	0.3
단독가구	-	4.2	6.9	9.0
비혈연가구	-	-	1.7	1.5
평균가구원수	5.5	5.1	4.1	3.7

자료: 통계청(1992), 한국의 사회지표 p. 304

불안정 가구비율(전국)

〈표2〉 단위:천가구:%

구분	1975	1980	1985
불안정가구비율	31.5	31.5	45.5
노인가구	17.1	20.1	32.8
미성년가구	6.7	4.6	5.7
편부모+미성년자가구	3.8	2.7	2.8

자료: 통계청(1992), 한국의 사회지표 p. 305

가정문제의 성향

〈표 3〉 단위: %

내 용	1970-1975	1975-1980	1981-1985	1986-1990
배우자 부정	36.4	27.5	23.5	23.5
유기 별거	16.6	6.4	2.9	3.1
성격차이	14.1	9.0	14.4	13.2
고부갈등	8.9	11.3	10.7	13.9
주벽, 폭행, 학대	6.8	11.0	7.7	8.0
가출	3.3	10.1	9.7	(처) 4.1 (남편) 2.6
가치관 차이	2.7	4.1	-	3.9
성적불만	2.0	-	-	2.5
도박	0.6	1.6	2.5	-
정신건강	0.3	5.5	3.6	5.0
신체장애	-	2.9	-	-
자녀문제	-	-	15.7	13.2
기타	8.3	10.6	9.3	7.0

자료: 서울시 중앙가정상담소(1991), 미간행

상담내용

부부문제 및 가족문제의 성향

<표4> 전체수:16,526명

구분	상담비율
부부문제	24.7
이성문제	18.4
가족문제	12.7
성문제	10.8
인생문제	8.6
사회문제	5.9
정보문제	5.7
정신건강	5.0
신체건강	0.9
불명	7.8
계	100.0

자료:사랑의전화(1993), 미간행

<표5> 단위: %

구분	내용	상담비율
부부문제	배우자외도	32.2
	가치관차이	18.5
	성생활	11.3
	이혼	9.5
	폭력	8.9
	배우자가출	4.6
가족문제	별거	2.2
	자녀문제	42.1
	시가문제	14.9
	부모갈등	12.9
	형제갈등	10.2
	부양	2.6
	경제곤란	2.5
	친척갈등	2.4
	가출	2.3

자료:사랑의전화(1993), 미간행

상담 가족문제의 성향

<표6>

단위: %

구분	내용	상담비율
가족관계문제	부부관계	32.2
	부모-자녀관계	32.1
	형제자매관계	8.6
	고부관계	17.1
	조부모-손자관계	3.9
	가족-동거자관계	6.1
	계	100.0
가족문제의 성향	경제 무능력	30.6
	자녀의 비행문제	18.4
	폭행/학대/주벽	14.0
	가출	6.5
	배우자의 부정	7.8
	정신건강	12.8
	자녀교육/이성관계	9.9
계	100.0	

자료:한국 여성개발원(1991), p. 37

상담기관 분포도

<표7>

단위: 기관수

지역	종합복지관	부녀	아동	청소년	노인	가정	전체
서울	16	11	3	32	4	4	70
부산	13	2	2	10	-	1	28
대구	4	2	4	4	-	2	16
인천	3	2	4	8	-	-	17
광주	3	2	5	6	-	-	16
대전	1	1	6	5	-	1	14
경기	9	5	11	8	-	-	33
강원	3	4	4	8	-	-	19
충북	2	3	1	1	-	-	7
충남	1	2	1	-	-	-	4
전북	3	5	3	3	-	-	14
전남	4	6	1	-	-	-	11
경북	2	5	3	1	-	-	11
경남	4	7	5	11	-	-	27
제주	1	3	1	3	-	-	8
계	69	60	54	100	4	8	295

자료: 한국 여성개발원(1991), p. 5

가족상담 내담자의 성/연령 계층별 분포

<표8>

단위:명수(%)

구분	종합복지관	부녀	아동	청소년	가정	전체
성	남	52.6	40.6	48.8	63.2	49.2
	여	47.4	59.4	51.2	36.8	50.8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연령계층	아동	16.5	19.4	19.0	9.2	15.4
	청소년	31.2	23.3	40.5	63.0	32.5
	청장년	37.0	54.2	40.5	23.9	43.8
	노인	15.3	3.1	-	3.9	8.3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한국 여성개발원(1991) p. 33

내담자의 경제적 지위, 가족주기, 가족형태

〈표9〉

단위: %

구 분	종합복지관	부녀	아동	청소년	가정	전체
경제적 지위						
상	5.8	2.7	3.8	14.9	13.6	6.4
중	32.1	45.2	31.4	29.9	13.6	35.0
하	62.1	52.1	64.8	55.2	55.1	58.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가족주기						
신혼기	2.8	0.0	6.6	0.6	13.7	3.5
출산및 미취학기	12.4	7.3	19.3	2.6	29.0	12.9
자녀아동기	27.3	18.0	7.9	11.0	22.4	20.6
자녀청년기	27.7	22.5	39.5	54.0	20.2	29.4
자녀독립기	4.1	4.5	2.6	10.4	2.7	4.2
중년기	17.5	45.3	24.1	20.1	7.6	24.5
노년기	8.1	2.4	0.0	1.3	4.4	4.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가족형태						
편부모가정	24.8	23.8	28.8	41.6	29.1	26.8
이혼과정중	6.4	16.3	11.6	3.9	6.3	9.5
재혼가정	4.2	6.7	7.3	4.5	5.0	5.4
동거가정	6.6	0.9	3.4	0.0	3.8	3.9
소년소녀가장	22.3	6.4	15.8	7.8	1.3	14.9
노인단독가정	5.0	0.4	0.0	0.0	5.1	2.7
취업부부가정	11.6	9.6	4.3	9.7	5.1	9.6
일반가정	19.1	35.9	28.8	32.5	44.3	27.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한국 여성개발원(1991), p. 36

가족상담 담당자

〈표10〉

기관수=125 단위: %

구 분	종합복지관	부녀	아동	청소년	노인	가정	전체
사회복지사	81.0	37.0	95.7	42.3	-	66.7	65.6
준 사회복지사	11.9	33.3	30.4	7.7	-	33.3	20.0
심리상담원	9.5	7.4	13.0	26.9	-	33.3	14.4
초빙전문상담원	16.7	7.4	0.0	19.2	-	16.7	12.0
전문인 자원봉사자	26.2	25.9	8.7	23.1	-	16.7	21.6
비전문 자원봉사자	14.3	7.4	0.0	3.8	-	16.7	8.0
행정요원/사무원	4.8	33.3	8.7	26.9	-	16.7	16.8

자료: 한국여성개발원(1991), p. 43

가족상담에 관한 지식 습득 방법

<표11>

단위: %

구 분	종합복지관	부녀	아동	노인	청소년	가정	전체
학교강의	63.8	16.7	29.3	100.0	34.0	20.0	38.4
훈련과정 참석	5.9	24.1	2.4	0.0	10.6	10.0	10.0
워크샵, 세미나 참석	8.7	11.1	12.2	0.0	8.5	20.0	10.3
유사직 교육	1.4	0.0	2.4	0.0	6.5	0.0	2.2
현직근무/관계서적	15.9	37.0	48.8	0.0	31.9	50.0	31.7
이론/기법 모름	4.3	11.1	4.9	0.0	8.5	0.0	6.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한국 여성개발원(1991), p. 53

상담실무자의 가족상담 필요성 인지도 및 필요이유

<표12>

단위: %

구 분	종합복지관	부녀	아동	청소년	노인	가정	전체
가족상담의 필요성 인식정도							
매우필요	84.5	65.5	74.4	78.5	100.0	80.0	76.5
조금필요	15.5	35.0	25.6	17.6	0.0	20.0	22.7
전혀필요없음	0.0	0.0	0.0	3.9	0.0	0.0	0.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필요이유							
개별상담만으로 문제해결 어려움	19.7	22.2	5.1	4.4	33.3	44.4	15.8
가정에 원인	39.4	38.9	43.6	42.3	66.7	22.3	40.2
가족에 개입필요	40.9	38.9	51.3	53.3	0.0	33.3	44.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한국 여성개발원(1991), p. 39

〈 참 고 문 헌 〉

1. 김한초, 한남제, 최성재, 유인희, (1986), 한국가족의 표준모형 개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 변화순, (1992), "가족의식에 관한 한국과 일본의 비교연구", 여성연구, 제10권, 제2호, 한국여성개발원
3. 서울시 중앙가정상담소, (1991), 가정불화원인-년도별 추세, 비간행물
4. 송성자, (1989), 가족관계와 가족치료, 서울:홍익제
5. 아산사회복지재단, (1986), 현대사회와 가족
6. 여성한국사회연구회 편, (1992), 한국가족의 부부관계, 서울:사회문화연구소
7. 유영주, (1990), 신 가족관계학, 서울:교문사
8. 이광규, (1981), 한국가족의 구조분석, 서울:알지사
9. 이광규, (1981b), 한국가족의 심리문제:고부문제를 중심으로, 서울 일지사
10. 이태영, (1989), 한국의 이혼율 연구II, 한국 가정법률상담소
11. 이효재, (1983), 가족과 사회, 서울:경문사
12. 장인협, (1985), "가족복지의 과제와 전망", 제3회 전국사회복지대회: 200년대를 향한 사회복지과제, 한국사회복지협의회
13. 최신덕, (1988), 결혼과 가족, 이화여대 출판부,
14. 최재석, (1982), 한국가족연구, 서울:일지사
15. 통계청, (1992), 한국의 사회지표
16. 한국 가족학 연구회, (1992), 도시 저소득층의 가족문제, 서울:하우
17. 가정법률상담소, (1990), 상담사건통계(1989. 1-1989.
18. 여성개발원, (1986), 여성관련 사회통계 및 지표
19. 여성개발원, (1988), 저소득층 모자가족에 관한 연구
20. 여성개발원, (1990a), 여성연구, 제8권 제4호
21. 여성개발원, (1990b), 영세지역 가족관계 및 사회적연결망에 관한 연구
22. 한국여성개발원, (1990c), 한국 가족정책에 관한 연구:여성 아동복지에 관한 서비스를 중심으로
23. 한국여성개발원, (1991), 여성백서
24. 한국여성개발원, (1991), 가족상담사업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25. 한국여성개발원, (1993), 21세기와 여성
26. 한국갤럽조사연구소, (1987), 한국주부의 생활과 의식구조
27. 한국갤럽조사연구소, (1983), 한국인의 가정생활과 자녀교육
28. 함영희, (1993), "변화하는 가족과 여성의 지위", 21세기와 여성, 한국여성개발원
29. Adams, B., (1980), The Family: A Sociological Interpretation, Chicago:Rand McNally College Pub.Co.
30. Lamanna, Mary and Riedmann, (1981), Marriage and

Families,

Belmont: Wadsworth Publishing Company,

31. Mark, Hutter, (1981), *The Changing Family*, New York: John Wiley & Sons
32. Piercy, Fred, Sprenkle, Douglas and Associates, (1986), *Family Therapy Sourcebook*, New York: The Guilford Press.
33. Shepard, J., and Voss, H., (1978), *Social Problems*, New York: McMillan Publishing Co.
34. Stark, R., (1975), *Social Problems*, New York: Random House, Inc.